

## 양혜규, 세계 무대 누빈다

15 June, 2016 | 문인영 기자

page 1 of 2



슬르윗 뒤집기, 23 배로 확장 후 셋으로 나뉘, 세 개의 탑이 있는 구조물, 2015 / 사진제공=국제갤러리.

스위스 바젤에서 매년 6월에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트페어 스위스 바젤이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된다.

국제갤러리 소속작가 양혜규는 언리미티드 섹션에 세 번째로 참여한다. 올해 주요 작품인 2015년 작업 '슬르윗 뒤집기' 연작으로 아트 바젤 언리미티드 섹션에 참가한다. 아트바젤 언리미티드 섹션은 기존의 고전적인 미술전시 개념을 벗어난 실험적인 플랫폼이다.

'슬르윗 뒤집기 - 23 배로 확장 후 셋으로 나뉘, 세 개의 탑이 있는 구조물' 은 500 개 이상의 독립된 부품들로 이루어진 대형 블라인드 설치작품이다. 작년 9월 리옹 비엔날레에서는 변형된 형태로 전시되었고, 아트바젤에서도 그 변신을 계속할 예정이다.

리움에서 세개의 탑이 단일한 부피로 공중에 설치되었던 것에 비해, 리움에서는 역시 부양하는 형태를 띄면서도 세개의 탑이 절단되어 3 개의 탑으로 설치되었다. 이어 바젤에서는 이 분리된 형태의 탑 3 개가 마치 땅 위에 접지해 서 있는 형태로 관람객들의 눈높이로 내려온다.

올해도 스위스 출신 큐레이터 지아니 젯처 (Gianni Jetzer)가 기획했으며, 양혜규를 비롯하여 제임스 로젠키스트, 아이 웨이웨이, 폴 매카시 등의 작품이 출품된다.

그의 신작 '불투명 바람이 부는 육각 공원'은 포르투갈 포르투에 소재한 세할베스 미술관이 자랑하는 아름다운 야외공간에 오는 2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전시된다.

또 프랑스 파리龐피두 아트센터에서는 '좀처럼 가시지 않는 누스' 개인전이 오는 7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열린다.



'좀처럼 가시지 않는 누스' 웹 포스터, 프랑스파리龐피두 센터, 2016 /사진제공=국제갤러리